

행복한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확산해 나갑니다

-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워라벨 행복산단 지원사업」 발대식 개최

고용노동부는 7.23.(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워라벨 행복산단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하여 문헌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인재채움뱅크 등 사업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발대식을 진행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청년 근로자 비중이 높은 산업단지로서, 정부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토대로 유관기관과 함께 단지 내에서 적극적인 제도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이 제도를 몰라서 못 쓰는 일이 없도록 한국산업단지공단·경영자연합회와 함께 입주기업에 대한 밀착 홍보와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기업 대표이사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설명회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등 행정데이터를 이용하여 제도 활용이 필요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발굴한 기업에는 일·육아동행 플래너, 컨설팅 기관이 먼저 찾아가 필요한 지원 제도로 연계하고 인재채움뱅크를 통한 맞춤형 대체인력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이러한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산업단지 맞춤형 일·가정 양립 지원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여 전국 모든 산단 입주기업이 일·가정 양립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구로구청장은 일·가정 양립 달성을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협업을 약속했다. 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구로구청 주관 일자리박람회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에 자치단체 지원사업(예: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벨 포인트제 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구로구 중소기업 위케이션 지원사업*과도 연계하는 등 정부-자치단체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 근로자들이 사무실을 떠나 근무하면서 업무에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공유오피스·숙박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

이날 이정식 장관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발대식 행사 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단지 내 사업주·근로자에게 아이스크림을 나눠주며 직접 일·가정 양립제도 홍보에 적극 나섰다.

이정식 장관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디지털 중심 산업단지로 변화하면서 도약과 발전을 이루어 낸 곳인 만큼, 일·가정 양립에 있어서도 변화와 도약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말하며, “산업단지가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확산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고용센터·자치단체·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1.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말씀
 2. 워라벨 행복산단 지원사업 발대식 행사 개요
 3. 워라벨 행복산단 지원사업 개요

담당 부서	통합고용정책국 일가정양립추진단	책임자	과 장	장중서	044-202-7962
		담당자	사무관	이호준	044-202-7969



[인사말씀]

-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문헌일 구로구청장님
산업단지경영자연협회 이제우 회장님
한국산업단지공단 김성기 서울지역본부장님
한국노동연구원 길현종 박사님
그리고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 구로는 1967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선 곳으로,
경제발전과 한강의 기적을 일구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 이제 산업환경의 변화와 함께
구로는 IT 중심의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탈바꿈하여
한국 IT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 오늘 이 곳에서 ‘워라벨 행복산단’ 발대식을 갖는 것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일·가정 양립에 있어서도
변화와 도약의 중심이 되는 첫 출발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워라벨 행복산단 추진방향]

-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서도
‘일·가정 양립 지원’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담았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정부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제도를 현장에 안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에,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에 충분한 관심을 갖도록
산업단지 전반을 바꿔나가겠습니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늘 여기 모이신 자치단체,
기업, 산업단지공단과 컨설팅 지원 기관 등과
다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경영자연합회에서는
기업이 제도를 몰라서 못 쓰는 일이 없도록
입주기업에 대한 밀착 제도 홍보와 함께
다른 기업의 우수사례를 적극 확산하기로 했습니다.
- 또한, 기업에서 제도를 도입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업 CEO의 결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CEO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설명회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또한, 구로구청 등 자치단체에서는
채용박람회, 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관내 기업에 일·가정 양립제도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고,
-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지원사업’ 등
자치단체 사업을 기업에 적극 연계하기로 하는 한편
다양한 인센티브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등 행정데이터를 이용하여
제도 활용이 필요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것입니다.
- 발굴한 기업에는 일·육아 동행 플래너를 비롯한 컨설팅 기관이
찾아가 진단한 후, 각종 지원금 및 유연근무 도입 등 필요한
지원제도로 연계하겠습니다.

- 또한, 기업이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인재채움뱅크 등을 통한 대체인력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이러한 협업을 통해, 정부는 산업단지 맞춤형 일·가정 양립 지원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전국의 모든 산단의 입주기업이 동료누리, 업무공백의 부담에서 벗어나 일·가정 양립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 ‘수적천석(水適穿石)’이란 말이 있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계속해서 떨어지면 돌을 뚫는다는 뜻으로
작은 힘이라도 꾸준히 계속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 저출생 현상은 한 번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출생 극복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이어질 때,
단순히 제도가 갖추어지는 것을 넘어서,
기업의 관행과 문화가 함께 개선되고,
저출생 반전의 실질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 정부 또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와 구미산업단지가
일·가정 양립을 선도하는 ‘행복산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진 배경**

-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제도를 적극 확산하기 위해 '24년 「워라벨 행복산단 지원사업」 시범 추진
 -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구미산업단지 2개 산업단지 대상 시범운영
- ⇒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맞아 사업에 대한 대내외 관심을 제고하고, 유관기관이 함께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다짐하는 합동 발대식 개최

□ **개요**

- **일시 및 장소:** 7.23.(화) 14:30~15:20(50분),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5층 회의실
- **참석자:** 정부·유관기관·단지 내 입주기업 사업주·근로자 등
 - (정부) 장관, 통합고용정책국장, 서울관악지청장 등
 - (유관기관) 구로구청,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산업단지공단경영자연합회, 컨설팅 기관, 인재채움뱅크 등
 - (입주기업) 단지 내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 희망 기업 3곳 (에이비온, 나루아이, 벤디트)

□ **세부 일정** ※ 행사 전체 공개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14:30 - 14:32	2'	▸ 참석자 소개	사회자
14:32 - 14:35	3'	▸ 인사 말씀	장관
14:35 - 14:38	3'	▸ 축사	구로구청장
14:38 - 14:43	5'	▸ 퍼즐 세레머니 진행 및 단체사진 촬영	참석자 전원
14:43 - 14:52	9'	▸ 사업 추진 경과, 향후 계획 등 발표	한국노동연구원
14:52 - 14:55	3'	▸ 입주기업 대상 홍보·확산방안 발표	산업단지공단 경영자연합회
14:55 - 15:20	25'	▸ 기업 건의사항 및 답변	입주기업
15:20	-	▸ 행사 종료 및 퇴장	사회자

□ **추진배경**

- 일하는 부모의 워라벨 지원제도의 지속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업무공백·동료눈치 등으로 적극적인 제도 활용이 어려운 한계
 - * 6+6 부모 육아휴직 특례, 육아휴직 기간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난임치료휴가기간 확대 및 급여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확대 등
- ⇒ 개별기업 접근이 아닌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 집중 지원·확산을 통해 중기에서 더 쉽게 워라벨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사업내용**

- 제도를 몰라서 못 쓰거나 눈치 주는 기업과 근로자가 없도록 거점 산업단지 선정,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밀착 홍보·지원 실시
- 산업단지별 수요를 파악하여 일·육아지원제도에 대한 사업주·근로자 컨설팅, 대체인력 사용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패키지 제공
 - * 대상별(남·여,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사업주 지원제도의 내용,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 워라벨 행복산단 지원사업 기관별 역할('24년 시범사업) 〉

	기관별 역할
총괄 연구기관	△ 사업 총괄 관리 △ 실태·수요조사 실시
산업단지공단	△ 입주기업 대상 홍보 △ 기업 집체교육 조직 △ 컨설팅 장소 제공 등
고용센터	△ 일·육아양립제도 안내 △ 기타 고용부 지원사업 연계 등
컨설팅 기관	△ 근로자·기업별 효과적 활용방법 맞춤형 컨설팅
인재채움뱅크	△ 대체인력 구인·구직 알선 △ 대체인력 미사용 기업 발굴·홍보

- 근로자 에게는 출산부터 육아기까지 휴직·유연근무 등 개인 사정에 따른 맞춤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의 내용과 함께 수혜방법, 회사 사정(관행)을 고려한 시기별 제도 활용안 제안
- 기업 에는 육아지원제도 관련 규정(법적 의무), 유연근무제도 도입 방안, 대체인력 활용 및 지원금 수혜 방법 등 제도 활용방법 컨설팅

□ **향후 계획**

- '24년 시범사업(2개소)→ '25년 광역지자체 확산 추진